



해외농약뉴스

세계 10대 농약기업 '96 판매액 신장

세 계 10대 농약회사들의 1996년 농약판매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몬산토는 유전자조합제초제저항성작물에 사용하는 글라이포세이트의 판매가 늘어나 22.8%의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영국의 제네카가 물량으로 9%, 금액으로 11.3%의 두자릿수 실적을 올렸다. 아그레보와 바스프도 상당한 실적을 올렸는데 바스프의 흑자는 스트로빌우린계 살균제인 크레속심메칠의 출시에 따른 것이다. 바이엘은 1.2%의 낮은 성장에 머물렀는데 3개 지역에서 6위로 떨어졌다. 롱프랑과 듀폰은 유럽, 남미, 아시아에서 판매호조를 보였다. 특히 롱프랑은 살충제 피프로닐에 힘입어 5.7%의 성장을 했다.

1위는 역시 산도스와 시바가 합병한 노바티스로 전년 대비 4.5% 성장에 45억\$의 판매를 기록했다.

96년 세계 전체 판매액중 이들 10대기업이 90%를, 1위인 노바티스가 15%를 차지하고 있다.

1996년도 세계 10대농약기업의 판매액 및 성장률

순 위	회사명	판매액(백만\$)	전년대비(%)
1 (-)	노바티스	4,527 (4,332)	+ 4.5
2 (2)	몬산토	2,997 (2,441)	+22.8
3 (4)	제네카	2,630 (2,363)	+11.3
4 (5)	아그레보	2,493 (2,344)	+ 6.4
5 (6)	듀폰	2,472 (2,322)	+ 6.5
6 (3)	바이엘	2,360 (2,332)	+ 1.2
7 (7)	롱프랑	2,210 (2,091)	+ 5.7
8 (8)	다우엘랑코	2,000 (1,962)	+ 1.9
9 (9)	사이나미드	1,989 (1,910)	+ 4.1
10(10)	바스프	1,541 (1,422)	+ 8.4

* ()는 전년도 순위 및 판매액

영국, 올부터 특허기간 25년으로 연장

영 국은 1997년 2월 8일부터 작물보호 관련제품의 특허기간을 5년 더 연장했다. 이는 영국에서 유럽연합의 규정 1610/96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977년의 특허법에서 특허권은 자료제출 완료후 20년까지 보장되었으나 새법에서 25년까지 보장함으로써 시장에서의 판매기회가 더 늘어났다. 특허신청시 비용은 250파운드이다.

일본, 농약등록절차 간소화 계획추진

일 본정부는 농약등록에 관련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6월중에 위원회를 설립하여 특허기간이 지난 제품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법을 검토하게 된다.

일본 농림부는 간소화 등록시스템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비싼 일본의 농약가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회사들은 현재 복제품 등록을 위해 독성자료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정부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현재 1년에 4회 하게 돼있는 농약생산량 자료제출을 한 번으로 줄였다. 관련부처와 기구들은 현재 다양화되어 있는 GLP기구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 토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1999년 말까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농약등록 자료제출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중국, 현지투자 외국기업에 원제합성 유도

최 근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이 중국회사들과 합작 투자하여 제품농약만 생산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허가하지 않고, 중국에서 농약원제를 합성하



해외농약뉴스

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고 있다.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은 현지에서 농약을 판매할 때 정부판매망에서 지역도매 상에 이르기까지 무려 5단계를 거치고 있는데다 이에 드는 은행자금마저 부족해 어려움이 기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농약시장은 성장잠재력이 커 외국기업이 투자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의 농약소비는 연간 약 10억달러이고 매년 수입물량을 포함한 75만톤의 제품이 팔리고 있으며 26만톤의 원제가 사용되고 있다. 1995년도 중국의 농약시장은 살충제 65%, 살균제 20%, 제초제 10%, 기타 5%였고 1996년에는 15%의 성장을 했다.

머크사 농약사업부 노바티스에 매각



근 미국의 머크사는 농약사업부를 스위스 노바티스사에 9억1천만 달러에 매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머크사는 최근의 정밀화학사업 개편과 함께 앞으로 핵심부문인 의약품 사업에 더욱 주력해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머크사의 농약·동물약품사업을 맡고있는 AGVET는 1996년 12월에 프랑스의 롱프랑과 손잡고 새로운 동물약품회사를 설립하면서 농약사업부를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머크사는 세계 60여개국에 살균제, 살충제 등 농약제품을 판매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2억달러 정도이다. 최종계약은 미국 및 여타국가의 독점금지법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바티스사는 농약부문에서 연간 매출액 40여억

달러로 세계 최대규모인데 이번 머크사의 농약사업부 인수로 옥수수용 제초제사업부를 BASF에 매각한 이후 축소된 사업을 강화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기반을 더욱 다지고 있다.

유기인계농약 아플라톡신 제어에 유효



약 유기인계 농약의 사용이 금지된다면 농산물의 아플라톡신 오염의 위험성이 증가될 것이다.”

최근 미국 식량농업정책연구센터(US NCFAP)의 레오 나르도 기아네시는 자신의 연구결과보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물을 가해하는 해충이 아플라톡신(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로 현재까지 알려진 천연 화합물중 가장 낮은 농도에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을 섭취하여 확산시킬 수 있고 이러한 해충을 방제하는데 유기인계 농약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FQPA(식품보호법)의 재평가 대상이 되어 있다.

국회가 FQPA를 통과시킬 때 농약이 아플라톡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면 아플라톡신의 섭취위험보다 유기인계의 섭취위험이 더 낮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성이 있어도 등록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현재 아플라톡신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농약은 없지만 옥수수, 목화, 땅콩, 아몬드 등의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농약의 사용이 아플라톡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데 일차적인 방법이라고 NCFAP는 강조했다. 아플라톡신을 확산시키는 해충으로는 옥수수 왕담배나방, 목화다래나방, 땅콩 알락명나방, 아몬드 명나방일종 등이 있다.

농약정보